

愛情 傳奇小說의 정체성과 역동성

김 문 희*

차 례

- | | |
|---------------------|---------------------|
| 1. 서론 | 4.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역동성 |
| 2.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들 | 5. 결론 |
| 3.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정체성 | 참고문헌 |

1. 서론

傳奇小說은 우리 고전소설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한 서사 유형이기 때문에 소설의 始原을 밝히는 열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온 장르이다. 그런 까닭에 傳奇小說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축적이 이루어져 있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고전소설 학계에서는 傳奇小說의 하위영역으로 愛情 傳奇小說類와 夢遊錄의 형태¹⁾나 혹은 愛情 傳奇類나 知遇類²⁾로 나누는데 합의하고 있다. 愛情 傳奇小說類나 愛情 傳奇類는 대체로 남녀간의 애정의 성취를 그 중심 주

* 서강대 박사과정 수료

- 1) 김종철, 「傳奇小說의 전개양상과 그 특징」, 『민족문화연구』제2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 2) 윤재민, 「조선후기 傳奇小說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제15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제로 하는 것이며, 夢遊錄의 형태나 知遇類는 역사적이거나 이념적 문제를 논의하면서 교술문학 쪽으로 경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愛情 傳奇小說類와 夢遊錄의 형태가 傳奇小說의 하위 영역을 형성한다고 할 때 夢遊錄의 형태와는 달리 愛情 傳奇小說의 구체적 작품을 논의할 때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원래 傳奇小說은 唐의 文言體 단편소설로 文士들이 화려한 變體에 가까운 古文으로 남녀간의 愛情이나 神異한 이야기 등의 奇事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지칭하는 것³⁾이라고 할 수 있다. 唐의 傳奇小說은 前代의 六朝의 志怪古事와는 달리 비교적 편폭이 길고, 사건의 내용이 파란만장하고, 동시에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으로 내용은 대체적으로 神怪, 幻夢, 愛情, 俠義, 宗教, 諷刺, 別傳, 懷古⁴⁾ 등의 일군의 소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傳奇小說의 경향은 당나라 傳奇小說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愛情 傳奇小說을 논의할 때는 장르적 자장을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체로 愛情 傳奇小說의 사적 전개는 나말여초의 「崔致遠」, 「調信傳」, 「金現感虎」, 15-16세기의 「萬福寺樛蒲記」, 「李生窺牆傳」, 「何生奇遇傳」과 17세기의 「雲英傳」, 「周生傳」, 「韋敬天傳」, 「想思洞記」, 「崔陟傳」의 흐름⁵⁾으로 정리된다.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특질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박희병 교수는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특질을 조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박희병⁶⁾교수는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로 문체적으로는 1) 典雅한 文體, 2) 敘事와 抒情의 결합 등을 들고 있다. 뒤이어 傳奇小說의 서사문법을 규명한다는 측면에서 인물의 특징적 면모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愛情 傳奇小說의 인물

3) 정상진, 『한국고전소설연구』 (삼지원, 2000) 120쪽.

4) 전인초, 『당대소설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5) 愛情 傳奇小說의 사적 전개에 대한 논의는 여러 선행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논의는 이혜순, 「傳奇小說의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 (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김종철, 「傳奇小說의 전개양상과 그 특질」, 『민족문화연구』 제2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박희병, 「韓國傳奇小說의 미학」 (돌베개, 1997), 소인호, 『韓國傳奇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등이다.

6) 박희병, 『韓國傳奇小說의 미학』 (돌베개, 1997)

들이 지니고 있는 특질이다. 전기적 인간은 고독감을 지닌 인물이며, 내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극성과 문예취향을 지닌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체적 특징과 인물이 지닌 성향만으로 愛情 傳奇小說의 공통점을 강조하게 되면 고전소설사를 지속과 연속의 측면에서 기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소설 양식사 자체의 굴절과 변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愛情 傳奇小說이 지닌 장르의 고유한 속성은 모호해질 수 있다.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자장을 지나치게 좁게 잡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장르적 자장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기술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장르의 일반적인 규범은 개별 작품들이 집적되어 하나의 윤곽이 그려질 때, 그것이 장르의 첫번째 국면을 형성하고, 개별 작품들이 장르의 일반적인 규범으로부터 이탈해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장르의 규범들을 실험대에 올리게 될 때, 장르는 그 변화를 수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여기서 장르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의 첫번째 국면은 무엇이며, 장르의 규범들을 실험대에 올리는 변모양상은 어떠한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사실상 愛情 傳奇小說의 변모양상은 17세기를 전후로 하여 지속과 변이의 측면에서 어지간히 논의되어 왔지만 어떤 유형의 서사를 愛情 傳奇小說類로 잡는가, 愛情 傳奇小說類의 특질은 어떻게 귀납할 수 있는가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개별 작품에서 귀납할 수 있는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장르적 지표들에서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 형성을 추동하는 장르적 정체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愛情 傳奇小說의 내적 변이를 통해 장르적 역동성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다루게 될 작품은 학계에서 愛情 傳奇小說로 분류하고 있는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何生奇遇傳」, 「雲英傳」, 「周生傳」, 「韋敬天傳」, 「想思洞記」, 「崔陟傳」⁷⁾이다.

7) 본고에서 다룰 대상 텍스트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재호 역주,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금오신화』(과학사, 1980)와 소재영 역주, 「何生奇遇傳」, 『企齋記異研究』(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0)과 이상구 역주, 「17세기 愛情傳奇小說」(일인, 1999)로 한다.

2.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들

愛情 傳奇小說을 논의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愛情 傳奇小說의 고유한 장르적 특질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傳奇小說이 문체적으로 서정과 서사의 결합이며, 전아하고 미려한 文言文으로 기술된 단편적 형식의 서사체라는 점은 唐나라나 우리나라의 傳奇小說에서 추출되는 공통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체적 기준만으로 愛情 傳奇小說의 개별작품을 들여다 보게되면 내적 형식이나 세계인식과 미적 지향은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기도 한다. 애정 주제를 傳奇적 수법으로 표현한 일군의 애정류 소설과 현실적인 시각으로 전개되는 애정류 소설은 다른 세계관과 미적지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럴 경우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행보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가가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특질을 해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愛情 傳奇小說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17세기의 현실적인 애정류 소설을 愛情 傳奇小說로 통칭하여 다루고 있다. 이 논의의 대부분은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은 전기성이나 환상성에서 탈피하여 현실적 문맥으로 서사적 편곡이 변화되면서 愛情 傳奇小說의 한 경향인 현실성의 강화를 보여준다고 본다. 그러나 17세기 애정류 소설이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지속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17세기는 傳奇小說의 양식사에서 분명하게 변이와 굴절을 겪는 시기이다. 17세기 애정류 소설이 전대의 전기성이나 비현실성을 극복하고 愛情 傳奇小說의 또 다른 스펙트럼인 현실성의 강화로 나타난다고 해도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기보다는 장르해체의 여러 양상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들은 무엇이며, 愛情 傳奇小說의 고유한 특질인 장르적 정체성은 어떻게 기술할 수 있으며,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이동의 징후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자장 안에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작품을 통해 장르적 지표가 추상화될 필요가 있다.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는 개별 작품의 문체와 구성 모티프의 측면과 이를 통한 세계인식의 면모에서 추출해 낼 수 있다. 愛情 傳奇小說의 미감을 나타내는 문체와

사건의 구성인 모티프는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다른 고전소설과 변별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특질은 다른 장르의 소설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愛情 傳奇小說은 서정과 서사의 결합, 미려한 文言文의 단편 서사체라는 점과 더불어 낭만적인 충동에 의해 서사가 교직된다. 이때의 낭만적인 충동이란 텍스트에 산전되는 감상적이고 정서적인 경향으로 인간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욕구를 뜻한다. 이 낭만성은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서사구조의 근간으로 삼는 애정소설의 고유한 테마관습일 수도 있으며, 더불어 세계를 인식하는 작가의 사유방식과 세계관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愛情 傳奇小說의 낭만적인 경향은 문체적 측면과 모티프의 구성에 따라 환기되는 미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문체적으로 愛情 傳奇小說은 그 동안에 지적되어 온 것처럼 서사 속에 펼쳐지는 감정의 적실한 표현인 시와 사의 결합⁸⁾이 두드러진다. 이와 더불어 15-17세기의 愛情 傳奇小說은 자신의 내면 감정을 독백적으로 드러내는 편지나 기도문이나 제문 등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를 지각하는 인물이나 서술자의 감각적인 묘사방식과 애상적이고 비애적인 감정의 분출 등이 두드러진다. 愛情 傳奇小說의 이같은 문체적 지표는 문사들의 자기표현의 욕망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체적 특질은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관이나 미적 지향을 조직화하는 결이 된다.

愛情 傳奇小說의 낭만적인 성향은 愛情 傳奇小說에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모티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점은 15-16세기의 愛情 傳奇小說에서 두드러진다. 愛情 傳奇小說은 인귀교환 모티프나 재생 모티프, 환몽 모티프와 같은 전기 모티프에 의한 傳奇의식을 장르적 속성으로 일반화한다. 전기 모티프를 통한 사건구성은 愛情 傳奇小說 특유의 장르적 관습을 구축하는 것이다. 愛情 傳奇

8) 傳奇小說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표현 방식이 구비될 수 있었던 동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唐代에 유행했던 溫卷과 行卷의 풍습이라는 지적이 많다. 과거 응시자들이 시험전에 자신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시관이나 당시의 유력 인사에게 찾아가 投卷하는 행위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시문의 형태뿐만 아니라 文史·詩筆·議論을 두루 갖춘 문학 형식으로서 傳奇가 개발·선포되었다. 소인호, 『한국전기문학연구』(국학자료원, 1998), 37-38쪽.

小説은 전기 모티프의 전경화를 통해 애정의 문제를 전달하고 인간 존재의 무게나 인간 욕망의 성취에 대한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조금 눈을 돌려 동아시아의 傳奇문학을 살펴보아도 愛情 傳奇小説의 전기 모티프의 관습적 사용은 愛情 傳奇小説의 주요한 장르적 동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풍성한 傳奇小説을 지니고 있는 唐나라 전기의 애정류를 보면 현실적인 애정담보다는 전기적인 애정담이 대부분이며, 명나라 구우의 『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았다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기 작품집인 『전기만록』을 살펴보아도 대부분 전기 모티프의 사용으로 서사가 진행된다.⁹⁾ 이처럼 愛情 傳奇小説의 장르적 핵심은 애정을 기이한 방식으로 전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후대로 갈수록 현실적인 애정담의 형태를 띠는 데 있고 이것은 장르의 구심점¹⁰⁾이 된다. 곧 愛情 傳奇小説은 모티프의 측면에서 전기 모티프의 사용과 문체적으로 미려한 文言文의 사용, 서정과 서사의 결합, 편지, 기도문, 제문의 결합, 인물과 서술자의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방식을 결합하여 장르적 정체성을 구현한다.

9) 정법진은 당나라 애정류 작품을 『이혼기』, 『임씨전』, 『유씨전』 등 모두 17작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와전』, 『앵앵전』, 『보비연』 등을 제외한 14편의 작품들은 다 신괴적 요소가 포함되어었다고 한다. 정법진, 「당대소설개설」, 『(당대소설선집)앵앵전』, (성균관대 출판부, 1998) 14쪽. 베트남의 완서가 쓴 『전기만록』의 傳奇小説은 20편이다. 이 중에서 애정류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은 「쾌주의부전」, 「목면수전」, 「서원기우기」, 「용정대송록」, 「도씨업원기」, 「서식선혼록」, 「재회」, 「남창여자록」, 「여랑전」 등 9작품인데, 이 중 「재회」만이 현실적인 애정담이고 나머지는 모두 전기 모티프의 사용으로 서사가 추동된다.

10) 愛情 傳奇小説에서 나타나는 '기이하기 때문에 전을 전한다.'라는 인식은 唐 傳奇나 우리나라 전기의 고유한 창작태도임을 알 수 있다. 김낙철은 唐 傳奇의 애정소설의 구조를 살펴면서 작품경향은 초현실세계→현실세계→초현실세계의 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초현실적 세계관이 후대로 갈수록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唐 傳奇의 매우 커다란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唐代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초현실적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에서 형성된 일종의 집단무의식과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명맥을 유지하지 하려했던 작가 심리의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낙철, 「당전기 애정소설의 구조연구」, (성균관대 중문학과 박사논문, 1997), 112쪽 참조. 우리나라의 愛情 傳奇小説은 당나라의 愛情 傳奇小説과 달리 초현실세계→현실세계의 양상으로 변모하지만 愛情 傳奇小説의 근본적인 장르적 인식은 기이함을 전하는 서사에서 출발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愛情 傳奇小說은 17세기를 전후하여 전기 모티프는 후경화되고 새로운 모티프의 변주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미의식과 세계관을 이어받기도 하고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문체적으로는 전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전기 모티프는 현실적 남녀의 애정담으로 교체된다. 점차로 현실적인 존재의 남녀의 이야기로 변이되면서 장르적 관습이 실험대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전대의 전기 모티프는 애정을 나누는 현실적 남녀가 만나는 순간 첫눈에 반하는 경이적이고 매혹적 모티프나 애정 장면의 극대화로 변이된다. 전기 모티프의 기이성은 남녀가 첫눈에 반하는 매혹적 모티프로 변이되고 애정 장면의 극대화로 남녀의 합일이라는 낭만적 경이로움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애정류 소설에서는 전기성이 탈각되고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을 새롭게 재편하는 가운데 세계를 지각하는 인물이나 서술자의 감각적인 묘사방식과 애상적이고 비애적인 감정의 강화가 두드러지기도 한다.

3.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정체성

앞 장에서 논의된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지표들은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雲英傳」, 「何生奇遇傳」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雲英傳」, 「何生奇遇傳」은 문체와 전기 모티프와 이를 통해 드러나는 세계인식의 측면에서 愛情 傳奇小說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있다.

「萬福寺樗蒲記」는 양생과 죽은 여인의 사랑을 시와 사, 축원문과 제문의 복합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그려낸다. 「萬福寺樗蒲記」는 봄밤의 낭만적 묘사로 시작되며 뒤이어 양생의 심경을 표현하는 시가 이어진다. 「萬福寺樗蒲記」의 서사는 원귀인 여인이 만복사의 부처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원문을 낭독하고 양생이 여인의 처지와 감정을 엿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생과 여인은 시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이생이 비현실적인 개녕동에서 만나는 네 여인들의 처지와 속내도 시를 통해 드러난다. 서사의 마지막에서는 여인과 이별하는 양생의 비통한 심정이 제문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萬福寺樗蒲記」는 문체적으로 愛情 傳奇小說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모티프 측면에서 「萬福寺樗蒲記」는 인귀교환 모티프를 핵심 모티프로 삼는다. 부처와의 저포놀이에서 양생이 승리하여 아름다운 배필을 얻는 것은 양생의 내면적인 발원이 빚어낸 환상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여인은 왜구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한 때문에 원귀로 떠도는 존재이다. 자신의 처지를 위로해 줄 인연을 꿈꾸는 여인의 욕망은 양생과 상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양생의 삶은 현실계에서 초라하고 불우하지만 비현실계에서 여인과 함께 하는 삶은 양생에게 풍요로움과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萬福寺樗蒲記」에는 양생과 여인의 인귀교환과 유사한 또 하나의 경험이 나타나는데, 양생과 개녕동의 네 원귀들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네 여인의 원귀는 자질이 총명하고 문장에 능하지만 가슴 속에 한을 지닌 존재로 좋은 배필을 만나고자 한다. 양생이 개녕동에서 네 여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이들과 시를 주고 받는 행위는 원귀들의 가슴 속에 쌓인 한을 풀어주는 解冤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생과 네 여인들의 만남 역시 인귀교환의 변형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양생과 여인의 만남과 사랑은 정씨, 오씨, 김씨, 류씨가 꿈꾸는 사랑을 대리적으로 실현한 것이고, 양생은 이 여인들을 통해 비현실계에서 거듭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

양생의 인귀교환 체험과 죽은 원귀들과의 만남이라는 비현실계의 체험은 현실계로 되돌아오는 양생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萬福寺樗蒲記」의 전기 모티프는 愛情 傳奇小說의 낭만적 성향을 드러내는 질료이기도 하면서 愛情 傳奇小說의 고유한 의미영역을 결정한다. 「萬福寺樗蒲記」에서 자아의 존재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비현실계의 존재들이며, 이것이 애정이라는 경험으로 변주되고 애정의 좌절은 자아의 허무의식으로 귀결된다. 사랑의 경험은 어떠한 경험보다 존재의 문제로 쉽게 전이될 수 있으며, 애정의 실패는 자아의 존재론적인 문제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 그러므로 「萬福寺樗蒲記」의 전기 모티프는 현실적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인간의 욕망과 그 無化의 문제를 모두 포함하며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형상화하는 방략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萬福寺樗蒲記」의 세계인식 역시 인간 존재에 관한 탐구와 인간의 세계내적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李生窺牆傳」은 재자가인인 이생과 최씨 처녀의 인물소개와 이생이 최씨 처녀의 답안을 엿보면서 최씨 처녀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부분의 愛情 傳奇小說처럼 이생과 최씨 처녀의 애정도 시로써 전달된다. 특히 「李生窺牆傳」의 시는 이생보다는 최씨 처녀의 심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활용된다. 최씨 처녀의 누각 다락에 있는 시와 벽면에 붙어 있는 四時의 경치를 읊은 시는 독백의 형식처럼 최씨 처녀의 정밀한 정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쓰임에서처럼 「李生窺牆傳」에는 최씨 처녀의 내면적 욕망이 보다 강하게 투영되어 있고 최씨 처녀의 적극성이 두드러진다.

모티프의 측면에서 「李生窺牆傳」은 「萬福寺楞瀟記」처럼 전체적인 서사가 인귀교환 모티프로 짜여지지는 않는다. 인귀교환 모티프는 이생과 최씨 처녀의 세 번째 만남과 헤어짐을 위해 구성된다. 이생과 최씨 처녀의 만남과 헤어짐은 세 번 반복된다. 두 번의 만남과 헤어짐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세계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고,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세 번째 만남과 헤어짐은 인귀교환 모티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생과 최씨 처녀의 최초의 이별은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발생한다. 이것은 최씨 처녀의 부모가 두 사람을 공식적으로 혼인시킴으로써 해결된다. 두 번째 이별은 최씨 처녀가 홍전적의 난으로 죽게 되자 발생하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생과 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李生窺牆傳」의 인귀교환 모티프가 설정된다. 인귀교환 모티프는 현실계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을 잇고자 하는 최씨 처녀의 욕망과 이생의 발원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생과 최씨 처녀의 세 번째 만남과 사랑은 「李生窺牆傳」의 절정을 이루며 사랑의 낭만성과 절대성을 환기한다. 이생은 幻身으로 돌아온 최씨 처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체를 의심하지 않고 생전과 같이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최씨 처녀와 이생의 사랑은 이승과 저승의 분리라는 법칙 앞에서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된다.

「李生窺牆傳」의 이생과 최씨 처녀의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은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적 자아의 의지와 이를 저지하는 현실적 압력 사이의 줄다리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압력에 패배한 서사적 자아는 예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생이 최씨 처녀와 영원히 이별하고 아내를 지극히 생각하다

병이 나서 두서너 달만에 죽는다는 결구는 현실적 삶에 대한 부정과 이탈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李生窺牆傳」의 세 번째 만남과 헤어짐을 가능하게 하는 인귀교환의 체험은 사랑의 절대성이 현실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절박한 한계상황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현실계의 존재인 이생에게 현실적 삶에 대한 부정과 허무감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李生窺牆傳」의 인귀교환 모티프는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을 부각시키며 필연적으로 현실적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인식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雲英傳」은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과 달리 17세기에 출현한 안평대군의 궁녀인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과 좌절을 보여주는 작품¹¹⁾이다. 「雲英傳」 역시 서사에 시와 편지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다. 김생과 운영이 주고 받는 시뿐만 아니라 운영과 함께 사는 다른 궁녀의 시에서도 궁녀들의 내면심리가 곡진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궁녀의 신분이면서도 외부 인사인 김생과 사랑을 나누는 운영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궁녀들의 욕망을 대리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운영과 김진사가 주고 받는 편지에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며,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 좌절과 현재적 삶에 대한 애상적이고 비애적인 정조가 인물의 발화에서도 적절하게 구사된다.

이러한 문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雲英傳」은 선비 유영의 幻夢체험이라는 전기 모티프가 서사의 틀로 들어온다. 「雲英傳」은 액자구조이면서 몽유구조를 취하고 있다. 「雲英傳」의 內話는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추구와 그 좌절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內話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청년 유영이 경험하는 몽유담이기도 하다.

11) 「雲英傳」은 17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牆傳」보다 시기적으로 후대의 작품이다. 그러므로 17세기에 출현하는 애정류 소설들과 비교하여 애정 傳奇小說의 역동성의 측면에서 다를 여지도 있다. 그러나 「雲英傳」의 전기 모티프는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牆傳」과 함께 愛情 傳奇小說의 독특한 세계인식을 드러내며 애정 傳奇小說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하게 구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17세기에 출현한 작품이라하더라도 「萬福寺樗蒲記」와 「李生窺牆傳」과 함께 다를 필요가 있다.

「雲英傳」이 시작되는 외부액자에는 수성궁의 묘사에 뒤이어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담을 듣게 되는 청자인 유영에 대한 서술이 이어진다. 안평대군 시절의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유영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가난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다. 이런 처지에 있는 유영에게 전해지는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담은 「雲英傳」의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게 한다. 「雲英傳」에서 환기되는 비극성은 내부 액자의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담에서 야기되는 것이지만 이 비극성은 내부 액자와 외부 액자의 서사적 자아들의 만남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담을 펼쳐고 있는 내부액자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성정인 애정 욕구와 이를 억압하는 당대의 유교윤리의 대결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원칙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러나 외부액자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한 운영과 김진사는 과거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랑이 펼쳐졌던 장소인 수성궁이 지난날의 영화로움을 상실하고 퇴락해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인생무상을 토로하고 있다. 내부 액자에서 환기되는 지난날의 사랑의 고통은 외부 액자에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운영과 김진사의 삶에 대한 무상감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두 사람 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명사는 죄없이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덜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대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회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들의 꽃은 향기롭고 들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렇듯 봄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 하겠습니까?¹²⁾

이처럼 운영과 김진사의 원혼은 현실계의 금지된 애정의 추구와 좌절을 겪고 난 후 인간 삶이 지닌 유한성과 한계를 인식하는 의식적 전환을 보이고 있

12) 「雲英傳」, 『17세기 愛情傳奇小說』, 157쪽.

다. 유교적 윤리의식과 현실원칙의 대변자로 설정된 안평대군의 권력과 영화도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감은 이중적인 비애감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비애감은 현실세계에서 「雲英傳」의 내화를 듣는 유영에게까지 전달된다.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과 죽음, 안평대군의 영화로웠던 삶의 조락을 전해 들은 외부 액자의 유영 역시 운영과 김진사의 감정에 동화되어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삶을 투시한다. 유영은 결국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다 부지소종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계의 존재인 유영의 삶에 비현실계의 존재인 운영과 김진사가 들어와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는 환몽 체험은 「雲英傳」이 「萬福寺楞瀟記」와 「李生窺牆傳」과 유사한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죽은 원혼이 현실의 틈새에 들어와 공유 체험자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현실계의 여성과 현실계의 남성이 사랑을 나눈 후 현실계의 남성이 삶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나 인간존재가 지닌 한계 상황을 문제삼는 것과 비견할 만하다. 「萬福寺楞瀟記」와 「李生窺牆傳」의 죽은 여인과의 애정 체험과 그 체험 후의 변화는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유영의 경험과 인식 변화에 대응되는 것이다. 「萬福寺楞瀟記」와 「李生窺牆傳」의 고유한 세계인식의 태도는 유영의 꿈이라는 틀을 통해 「雲英傳」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雲英傳」은 애정 좌절을 통한 비극성으로부터 인간의 현재적 삶과 관련된 존재의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愛情傳奇小說의 세계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何生奇遇傳」 역시 서정과 서사의 결합이라는 愛情傳奇小說의 문체적 특질을 공유한다. 하생이 원귀인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도 여인의 시를 통해 가능하게 된다. 특히 하생이 점쟁이의 예언에 따라 국도남문을 지나 여인의 집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는 현실적 존재인 하생과 원귀인 여인이 인연을 맺을 것이란 서사적 예시를 가능하게 한다.

모티프의 측면에서도 「何生奇遇傳」은 愛情傳奇小說의 모티프 관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何生奇遇傳」은 만남- 사랑- 장애- 결합이라는 서사적 국면을 지니는데, 다만 인귀교환 모티프와 재생 모티프는 만남과 사랑의 서사 국면과 결부되고 있다. 따라서 「何生奇遇傳」에서의 만남과 사랑은 비현실적 방

법으로 실현되고, 장애와 결합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생은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인물로 불운을 거듭하다 자기의 운명을 잡치기 위해 낙타고 아래에 사는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 원귀인 여인과의 결연은 하생의 삶에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요절한 여인은 옥황상제가 사흘간의 말미를 주어 재생할 기회를 주자, 하생에게 자신의 재생을 도울 것을 요청한다. 여인은 하생의 도움으로 사흘만에 재생하게 되는데 여인의 재생은 여인의 삶에 대한 욕망과 하생의 욕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따라서 「何生奇遇傳」의 전기 모티프는 「萬福寺樗蒲記」나 「李生窺牆傳」, 「雲英傳」과 조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점은 「何生奇遇傳」의 세계인식과 의미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何生奇遇傳」의 전기 모티프는 행복한 결연을 마련하는 장치로 고안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귀교환 모티프와 재생 모티프는 하생과 여인의 애정을 실현시키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면서 하생과 여인의 내면적 욕망의 실현과도 맞물려 있다. 하생과 여인의 애정실현은 하생의 결핍된 욕망 충족이면서 여인의 재생 욕망의 충족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병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생의 현실적 욕망은 현실세계에서 또 한번 장애를 맞는다. 이 장애는 여인의 아버지가 하생의 가문이 한미함을 문제삼는 것에서 발생한다. 하생과 여인의 혼사 장애는 하생의 적극적인 행동보다는 여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 해결된다. 이처럼 「何生奇遇傳」은 철저히 현실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것은 현실에서 좌절된 인간의 욕망은 반드시 현실의 맥락에서 풀리고 충족되어야 한다는 현세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何生奇遇傳」의 전기 모티프는 현실적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를 전기 모티프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실적인 장애는 현실적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따라서 「何生奇遇傳」은 현실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을 보여준다. 인간 존

재의 문제를 다루되 그 문제의 해답을 현실적 삶 안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何生奇遇傳」의 전기 모티프는 현실적 삶에 내재한 불합리함과 질곡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현실의 경합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형상화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관습을 문체와 전기 모티프의 형상화를 통한 세계인식의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이것은 愛情 傳奇小說의 개별작품이 집적되어 하나의 운곽을 그려내는 장르적 정체성이기도 하다. 愛情 傳奇小說은 문체적 측면에서 서정과 서사의 결합, 미려한 文言, 자기독백에 유용한 편지, 축원문, 제문의 적절한 사용,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체는 愛情 傳奇小說의 낭만적인 사건구성 방식과도 일맥 상통한다. 愛情 傳奇小說은 환상의 형식인 전기 모티프를 도입한다. 기이하고 신이한 경험을 전하는 傳奇의식은 필연적으로 인귀교환, 재생, 환몽과 같은 전기 모티프에 강하게 견인되고 이러한 傳奇의식은 愛情 傳奇小說의 독특한 의미영역과 세계인식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雲英傳」, 「何生奇遇傳」은 기이함을 전한다는 창작의식을 지니고 전기 모티프를 전경화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愛情 傳奇小說의 전기 모티프는 다양한 인간의 삶에서 기이한 경험을 직조하여 서사적 자아의 인식의 지평을 열어 놓거나 현실적 고난상황을 해결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인식은 두 가지 양상으로 대별된다.

먼저 인귀교환 모티프나 환몽 모티프와 같은 전기 모티프를 통해 삶에 내재해 있는 결핍을 강화하면서 인간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는 내성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때의 전기 모티프는 인간의 삶을 되짚어 보고 성찰하고 각성하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다. 이것은 「萬福寺樗蒲記」, 「李生窺牆傳」, 「雲英傳」에서 추출되는 공통된 세계인식과 의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비현실계의 존재로 인해 삶에 대한 허무의식과 무상감, 비애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계와의 이질적이고 부조화되는 경험은 현실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한편으로 인귀교환 모티프와 재생 모티프는 삶에 노정되어 있는 결핍을 극

복하는 수단으로 형상화되어 현실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 욕망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데, 「何生奇遇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귀교환 모티프나 재생 모티프는 삶의 결핍상황을 만회하고 개선하기 위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철저히 인간의 욕망과 현실의 경합을 전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愛情 傳奇小說은 작가의 낭만적인 세계인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서사양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작가의 자기 文才를 과시하는 욕망과 사유방식은 문체적으로 서정과 서사의 결합과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편지나 제문, 축원문의 혼합을 마련하게 되고, 전기 모티프를 사용하여 전기성을 서사의 중심적 추진력으로 하여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정체성을 구현한다. 그러므로 愛情 傳奇小說에는 인간과 세계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이 드러나고 인간 존재의 문제와 인간 욕망의 성취를 서사화하는 충동이 녹아있는 것이다.

4.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역동성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인 「周生傳」, 「韋敬天傳」, 「想思洞記」, 「崔陟傳」 등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전통을 변모시키고 있다.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은 서정과 서사의 결합이라는 측면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유사하지만 인귀교환 모티프나 환몽 모티프와 같은 전기 모티프가 소거되고 현실적 존재인 남녀의 애정문제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에서는 전기 모티프의 관습적 사용은 이미 실험대에 올라가고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이 전지했던 세계인식의 태도를 이어받기도 하고, 혹은 이탈하여 새로운 장르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장르 운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周生傳」과 「韋敬天傳」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탐구라는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인식을 이어받고 있다. 「周生傳」은 몰락한 양반인 주생과 기생인 배도, 주생과 사대부의 딸인 선화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周生傳」에서 나타나는 서정과 서사의 결합, 죽은 배도를 애도하는 주생의 제문, 주생과 선화의 편지 등의 활용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문체적으로 유사한 국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周生傳」에는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보다 감각적이고 지

각적인 묘사방식과 애상적이고 비애적인 감정의 분출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감각적인 묘사방식과 애상적 감정의 강화는 『周生傳』의 비극적인 상황을 돋보이게 한다.

주생은 현실에서 심각한 결핍상황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주생은 태학에 다니는 몇 년 동안 실력은 있지만 계속해서 과거에 낙방하자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며 떠돌다 옛날 고향인 전당에서 기생 배도를 만나게 된다. 주생과 배도의 애정은 현실에서 소외된 인간의 대리 만족으로 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생과 배도의 애정은 주생의 변심으로 파국을 맞는다. 주생은 노승상의 딸인 선화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당한다.

주생과 배도의 사랑이 두 사람의 불우한 처지에서 비롯되는 공허감을 상쇄하고 신뢰를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면, 선화를 향한 주생의 마음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동적이며 열정적인 성격을 띤다. 주생의 변심은 주생의 애욕과 탐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열정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다. 선화에 대한 주생의 태도는 배도와는 사뭇 다르다. 주생이 선화를 보는 순간에 반해버리는 매혹적 모티프와 주생과 선화의 애정장면은 놀라움을 불러 일으킨다.

나이가 14, 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 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뻗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 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마가귀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그 소녀를 본 주생은 넋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갈 뻔했다.¹³⁾

선화는 짐짓 못 들은 채하면서 즉시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주생은 방안으로 들어가 선화와 동침을 하였다. 선화는 나이가 어리고 몸이 허약해 정사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열은 구름 속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벼들가지가 하늘거리며 꽃이 교태를 부리듯이 향기로운 울음소리로 속삭이는가 하면, 잔잔하게 미소를 짓거나 얼굴을 살짝 찌푸리곤 하였다. 주생은 벌이 꿀을 탐하고 나비가 꽃을 사랑하듯이 정신이 혼미하고 화락하여 날이

13) 『周生傳』, 『17세기 愛情 傳奇小說』, 44쪽.

새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¹⁴⁾

이처럼 「周生傳」에서는 애정 대상자를 보고 첫눈에 매료되는 매혹적 모티프와 애정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 두 남녀의 애정의 내밀함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전기 모티프가 구현했던 전기성을 현실적 맥락의 경이로움으로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곧 「周生傳」은 愛情 傳奇小說의 傳奇의식을 매혹적 모티프와 애정 장면의 극대화로 대체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생과 선화의 이러한 열정적 사랑은 배도와 주생의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 배도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 주생과 선화의 결연 역시 임신왜란이라는 전쟁 때문에 지연된다. 임신하고 싶은 욕망이 좌절되자 그 도피처로 선택된 배도와의 애정좌절, 선화와의 애정좌절은 愛情 傳奇小說의 전기 모티프가 서사적 자아의 세계인식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周生傳」의 의미영역을 결정한다. 愛情 傳奇小說의 기이하고 신이한 애정 경험과 서사적 자아의 삶의 태도는 「周生傳」에서 두 번의 애정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주생의 사랑의 양태는 현실적으로 소외된 존재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의 현실적 삶의 조건을 문제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은 「周生傳」이 액자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周生傳」은 도입액자는 없고 종결액자만 있는데, 종결액자에 나타나는 필사자인 ‘나’의 반응은 주생과 배도의 사랑 이야기, 주생과 선화의 사랑 이야기를 어떠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가 하는 단서와 「周生傳」이 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필사자인 ‘나’는 그들이 주고 받았던 시의 가사가 아름다운 까닭에 그들의 기이한 만남과 아름다운 기약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 주생과 배도, 선화와의 사랑과 그 좌절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야기시키고 더불어 인간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눈을 돌리게 한다. 「周生傳」에서 환기되는 ‘안타까움과 슬픔’은 현실이 가하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인간 존재의 비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주생의 두 번의 애정 경험은 삶에는 인간의 힘으로 개선할 수 없는 운명적인 힘이 있고, 이에 따라 인간의 기구한 운명을 보이는 것이

14) 「周生傳」, 『17세기 愛情 傳奇小說』, 50쪽.

다.

따라서 「周生傳」이 현실의 권력에서 소외된 인간 존재가 벌이는 힘겨운 싸움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이 보여준던 세계인식을 이어받고 있다. 전기 모티프는 소거되고 현실적 존재의 좌절된 애정을 통해 철저히 여기, 이곳의 삶의 한계를 노정하고 현실적 삶의 질곡을 보여준다. 이것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의미영역과 정조적 측면에서 맞닿아 있는 것이다.

「韋敬天傳」은 위생과 소숙방의 만남 - 이별 - 결연 - 이별이라는 비극적 애정담으로 전개된다. 서사구성상 「韋敬天傳」의 위생과 소숙방의 애정담은 「周生傳」의 주생과 선화의 애정담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韋敬天傳」은 위경천의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성향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는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위경천과 소숙방이 주고받는 시와 위경천과 소숙방 부모의 편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경천과 소숙방의 인연을 잇고 있다. 「韋敬天傳」 역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문체적 특질을 유지하면서 낭만적이고 비애적인 애정담을 펼쳐나간다.

위생은 친구인 장생과 배를 타고 봄경치를 즐기며 악양성으로 가게 되는데 배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어떤 마을에 당도하게 된다. 그 마을에서 우연히 노랫소리가 나는 집을 발견하고 그 집의 사다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가 소숙방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혹되어 소숙방과 사랑을 나눈다. 「韋敬天傳」 역시 연인을 만나 첫눈에 반하는 매혹적 모티프와 애정 장면의 극대화로 낭만성과 경이로움을 드러내며 위경천과 소숙방의 사랑을 전개한다.

위생은 사다리를 타고 누각으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본 뒤 비로소 발이 처진 기둥 옆에 앉아 선잠을 청하면서 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로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여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옷을 털고 일어나 뜰 사이를 산보하고 있는데, 멀리 후원에서 사람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다. 위생이 고개를 빼들고 바라보니 자줏빛 장미꽃 아래에 붉은 연등이 하나 매달려 있고, 그 아래에 미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다. 나이는 17, 8세 정도 되었는데, 양전하고 선녀 같은 자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하였다. 그녀는 손에 한떨기 꽃봉우리를 꺾어 들고 머리를 누각에 기댄 채 시를 한 수 읊었다.¹⁵⁾

15) 「韋敬天傳」, 「17세기 愛情 傳奇小說」, 75쪽.

침상 위에는 비단으로 만든 오리 떼 모양의 향로가 침향(沈香) 한 심지를 물고 있었는데, 향불의 연기가 실처럼 간드러지게 피어올랐다. 처녀는 그 안에 누워 있었는데, 비단 이불이 반쯤 밀쳐져 옥같이 하얀 살결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삼단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이 베개에 비졌으며, 향기로운 땀이 뺨에 맺혀 있었다. <중략> 위생이 비록 끌어안아도 처녀는 부끄러워 눈썹을 지긋이 들어올리기는 했으나 눈길은 은근하였으며, 몸은 가벼운 버들개지처럼 가눌 수 없는 듯 하였다. 위생은 볼 구름이 피어나듯 멈추지 않고 길은 애무를 계속하다가 마음이 매우 흡족해진 뒤에야 끝내었다. 이불을 가지런히 하고 누우니, 원앙이 어우러진 침상 위에 꽃 그림자가 어른거렸다.¹⁶⁾

이처럼 위경천과 소낭자의 애정 행위는 서사의 시간적 전개를 거의 정지하고 텍스트에서 뚜렷한 인상으로 초점화되어 나타난다. 「韋敬天傳」의 매혹적 모티프와 애정 장면의 극대화는 愛情 傳奇小說의 傳奇의식을 현실적인 애정담으로 변화시키면서 마련한 서사적 안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죽은 위경천이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 소낭자와의 인연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자 아버지가 위경천의 시신을 소숙방의 집으로 보낸다는 설정 역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전기 모티프에 전인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韋敬天傳」의 위경천과 소숙방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구는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유사한 정조를 보여준다. 위생과 소숙방의 1차적 애정 장애는 현실적 윤리규범과 사대부 집안과 무인 집안이라는 신분차이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이들의 만남은 위생과 소숙방의 부모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위생과 소숙방이 상심해서 병이 들자 양가 집안은 위생과 소숙방을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게 하여 다시 이들의 사랑을 이어준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발발로 위생이 서기로 발탁되면서 위생과 소숙방은 헤어지게 된다. 위생은 전쟁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소숙방을 그리워하다 병이 깊어져 죽게된다. 위생의 죽음을 알게된 소숙방 역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비단수건으로 목을 매어 자결해 버린다는 결구는 세계의 폭력성에 주저앉고 마는 나약한 서사적 자아의 현실적 패배를 의미한다.

기실 「韋敬天傳」의 위생과 소숙방은 극도로 나약하고 섬세한 심성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고 이들의 애정추구 행위 역시 애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일관되고 있어서 텍스트 전체가 애정의 좌절이 야기하는 애상과 감상을 드

16) 「韋敬天傳」, 『17세기 愛情 傳奇小說』, 77쪽.

러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현실적 신분차이와 전쟁이라는 장애 속에서 추구되는 위생과 소숙방의 애정은 기구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삶과 그 좌절이라는 경험을 직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와 세계의 대립 상황에서 자아가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의 힘에 패배하는 것은 세계의 심대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韋敬天傳」의 비애적 정조와 애상적 감정의 과잉은 나약한 심성의 남녀 주인공이 현실적 질곡과 맞서는 데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韋敬天傳」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같이 인간의 삶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보이면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정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想思洞記」와 「崔陟傳」은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 규범을 실험대에 올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체적으로는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마찬가지로 시의 삼입,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나 매혹적 모티프가 나타나지만 세계인식과 서사구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면모를 보인다. 문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전대의 애정 傳奇小說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서사형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想思洞記」는 김생과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이 현실 세계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작품이다. 김생은 인품과 용모, 글재주가 뛰어난 풍류랑으로 봄날의 흥취에 취해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다가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김생과 영영이 첫눈에 서로를 보고 반해버리는 매혹적 모티프는 「想思洞記」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매혹적 모티프는 김생과 영영의 현실적 애정실현의 동력이 되는 것으로 마련된 것이다. 영영을 보고 상사병에 빠져있던 김생은 하인 막동과 상사동의 노파의 도움으로 회산군의 궁궐에서 남몰래 영영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김생과 영영은 단 한번의 사랑을 나누고 이별한다.

「想思洞記」의 김생과 영영의 이별은 회산군 궁녀라는 영영의 신분 때문에 미리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영의 궁녀라는 신분은 가문간의 차이와 같은 갈등요소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김생과 영영은 유교적 규범을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김생과 영영의 사랑은 현실적 금제에 의해 좌절되고 그 성취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나 회산군이 우연히 병으로 죽자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사라지면서 김생과 영영의 사

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김생과 영영은 회산군 부인의 조카인 이정자와 회산군 부인의 도움으로 완전한 애정을 성취하게 된다.

「想思洞記」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김생과 영영의 애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김생과 영영은 사회적 윤리가 금지하는 사랑을 시작하지만 사회적 윤리에 순응하며 이별을 맞아들인다. 이들의 사랑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제 삼자의 도움과 회산군의 죽음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영영과 김생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그만큼 줄어들고 현실적 압력과 서사적 자아는 팽팽한 대결구도를 취하지 않고 갈등은 쉽게 풀리고 만다. 이처럼 「想思洞記」에서 애정을 좌절시키고 제어하는 현실적인 압력의 심각성은 약화되고 서사의 목적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완성하여 철저히 현실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想思洞記」는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억압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궁녀와 선비의 애정 실현이라는 현실 안주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궁녀와 선비의 금지된 사랑의 테마는 극적이고 행복한 결말을 연출하기 위한 이색적인 소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想思洞記」의 선비와 궁녀의 애정은 인간이 잠재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현실적인 만족을 극대화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며 현실적인 애정담으로 의미화된다. 이 점은 「想思洞記」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이 지니고 있던 인간 존재에 대한 진지한 탐구나 반성적 인식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인식에서 벗어나 애정추구가 목적이 되는 본격적인 애정소설로의 장르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想思洞記」는 문체적으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관이나 미적 지향과 다른 새로운 애정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역동성은 「崔陟傳」에서 보다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崔陟傳」의 전체 서사는 최척과 옥영의 결연과정과 전쟁으로 인한 최척과 옥영 가족의 이산과 해후 과정을 밟아간다. 전반부에서는 최척과 옥영의 만남과 사랑, 장애와 해결 국면이 드러나지만 후반부에서는 두 남녀의 애정담보다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가족의 이합 집산을 보여주는 가족 서사로 전이되고 있다.

「崔陟傳」의 전반부는 최척과 옥영의 혼인 실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崔陟傳」 역시 愛情 傳奇小說의 문체를 심분 활용하고 있다. 최척과 옥영의 시의 교환, 최척과 옥영의 편지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고 최척과 옥영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혼인을 하게 된다. 이처럼 「崔陟傳」의 전반부는 「周生傳」이나 「韋敬天傳」처럼 애정실현의 욕구와 혼사장애로 서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옥영은 첫눈에 최척에게 반하지만 최척에게 중매를 두어 정식으로 자신에게 청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점은 「周生傳」과 「韋敬天傳」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은 옥영이 추구하는 애정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를 암시하며 「崔陟傳」이 애정 傳奇小說의 장르적 구심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옥영은 전란을 피해 친척집에 의탁하고 있는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온전한 가정을 꾸밈으로써 안정된 상태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므로 최척은 옥영에게 있어 애정의 대상이면서 험난한 전란 중에 자신의 울타리가 되는 존재이다. 옥영과 최척의 1차적 애정 장애나 2차적 애정 장애 모두 옥영의 강한 의지로 해결된다. 따라서 최척과 옥영의 사랑은 「崔陟傳」의 전체 서사에서 그 기능과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崔陟傳」의 후반부는 최척과 옥영 가족의 헤어짐 - 만남 - 헤어짐- 만남의 국면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이 때문에 「崔陟傳」의 서사는 자아와 세계의 폭넓은 교섭을 보여주면서 최척과 옥영 가족의 이합집산을 통해 보조인물의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게 되고 서사적 공간의 확대로 서사의 편폭이 확대되는 등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전반부의 최척과 옥영의 애정 성취는 후반부의 가족의 이합과 집산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최척과 옥영의 결연 후의 장애는 정유재란과 호족의 명나라 침입이라는 전쟁 상황에서 비롯된다. 정유재란과 호족의 명나라 침입이라는 두 차례의 전란은 애정 장애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최척과 옥영의 온 가족에게 가해지는 집단적인 시련과 고난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최척과 옥영의 애정도 가족차원의 애정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최척과 옥영은 첫눈에 반하지만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관습인 혼인을 먼저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崔陟傳」이 온전한 가정을 형성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가족애를 강조하기 위한 서사임을 보이기 위해

서이다. 가정은 거둬지는 전란에서 개인의 정신적 안주의 공간이 되고 개인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崔陟傳」의 최척과 옥영의 애정은 전반부에서는 신분차이와 전쟁이라는 장애를 통해 애정 성취를 보여주지만, 후반부에서는 실제적인 고난 상황인 전쟁에 대처하는 힘이 된다. 전반부의 최척과 옥영의 2차적 애정 장애가 되는 임진왜란은 상당히 관습화된 전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후반부의 가족의 분리를 야기시키는 정유재란과 호족의 명나라침입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쟁의 고난상황으로 기능한다. 최척과 옥영의 애정은 남녀의 상호 교합적인 욕망에서 가족애라는 차원으로 심화되어 전쟁의 질곡을 헤쳐나가는 힘으로 탈바꿈되는 것이다.

따라서 「崔陟傳」은 남녀의 애정을 기반으로 하되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는 달리 가족애의 확산이라는 또 다른 관심사로 그 서사적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척과 옥영의 사랑의 성취는 애정이 가족 구성의 일차적인 힘이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파편화되고 부정적인 현실을 서사적으로 재편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한다. 「崔陟傳」이 문체적으로 일정 부분 愛情 傳奇小說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사의 지향점이 가족애라는 혈연으로 귀착되고 있다는 점은 「崔陟傳」이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관이나 의미영역을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崔陟傳」은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 관습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가족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장르운동¹⁷⁾을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처럼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비교할 때 문체적 측면에서는 엄정한 대구와 화려한 문체와는 달리 비교적 소박한 고문으로 되어¹⁸⁾ 얼마간의 변화가 있지만 시와 사의 결합, 편지의 활용,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방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기 모티프가 소거되면서 愛情 傳奇小說의 전기성은 약화되고 전기 모티프를 대체하는 매혹적 모티프와 애정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관습인 傳奇의식은 17세기가 담지하고

17) 줄고, 「崔陟傳의 가족 지향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6집(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87쪽.

18) 이혜순, 「傳奇小說의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성오 소재영 교수 환력기념논총, 집문당, 1993), 228쪽.

있는 전환적인 역사적·사회적 변화에 맞춰 현실적 차원의 경이로움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되면서 장르의 변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모 속에서도 「周生傳」과 「韋敬天傳」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세계인식이나 의미영역을 이어받고 있다. 「周生傳」은 愛情 傳奇小說과 달리 현실적 존재인 남녀의 반복되는 애정 좌절의 체험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愛情 傳奇小說에서 인귀교환이나 환몽 체험은 현실적 존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한다. 「周生傳」에서 반복되는 애정의 좌절은 이러한 愛情 傳奇小說의 전기 모티프의 역할과 유사하다. 「韋敬天傳」 역시 세계의 압력에 의해 패배하는 남녀의 죽음을 통한 비극적 애정의 문제에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정조를 잇고 있다.

「想思洞記」와 「崔陟傳」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좀더 멀리 떨어져 있다. 「想思洞記」는 愛情 傳奇小說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애정추구가 목적이 되는 본격적인 애정소설로의 장르이동을 보여준다. 궁녀와 선비의 문제적인 애정 상황은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행복하고 극적인 결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崔陟傳」은 남녀의 애정을 기반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이 애정의 성격은 가족애의 확산으로 변모된다. 「崔陟傳」은 전란이라는 현실적 고난과 시련에 대한 허구적 응전으로 남녀의 애정이 가족애로 추구되면서 17세기 애정류 소설의 독특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곧 「崔陟傳」은 가족 서사의 가능성을 배태하며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과 다른 불연속적인 장르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愛情 傳奇小說에서 추출되는 장르적 지표들을 통해 愛情 傳奇小說의 정체성과 역동성을 밝혀보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다.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자장을 어디까지 잡느냐하는 문제는 쉽게 재단할 수 없지만 서정과 서사의 결합과 미려한 文言文의 문체를 지닌 애정류 소설을 모두 愛情 傳奇小說이라는

범주로 일반화시켜 버리면 愛情 傳奇小說의 특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정체성과 본령은 문체적 측면에서 서정과 서사의 결합, 미려한 文言文,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묘사방식과 전기 모티프의 관습적 사용으로 삶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보여주는 데 있다. 愛情 傳奇小說은 작가의 낭만적인 사유방식과 세계인식이 구현된 서사양식이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는 내성적인 시각을 견지하거나 현실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 욕망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인식적 범주를 보여준다. 愛情 傳奇小說의 창작동인이자 창작원리의 기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은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장르적 관습에 묶여있기도 하지만 그 매듭을 풀고 장르의 원심적인 운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문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愛情 傳奇小說의 옷을 입고 있지만 세계인식이나 미적 지향은 변모하고 새로운 서사유형으로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17세기의 애정류 소설은 전기 모티프는 후퇴하고 현실적 애정담으로 전대의 愛情 傳奇小說의 의미영역을 이어받기도 하고 새로운 서사형을 모색하며 다채로운 장르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愛情 傳奇小說의 正體性, 愛情 傳奇小說의 力動性, 장르적 관습, 장르적 지표, 傳奇性, 現實性, 전기 모티프, 매혹적 모티프.

參考文獻

- 김낙철, 「당전기 애정소설의 구조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7.
 김대현, 『조선시대 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6.
 김문희, 「최척전의 가족 지향성 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 제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김종철, 「전기소설의 전개양상과 그 특질」, 『민족문화연구』 제28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소인호, 『한국전기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윤재민, 『조선후기 전기소설의 향방』, 『민족문화사연구』 제15호, 민족문화사연구소, 1999.
- 윤채근, 『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 이상구, 『17세기 愛情傳奇小說』, 월인, 1999.
- 이재호, 『금오신화』, 과학사, 1980.
- 이혜순, 「전기소설의 전개」,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 전인초, 『당대소설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정상진, 『한국고전소설연구』, 삼지원, 2000.
- 정환국, 「17세기 애정류 한문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and dynamics of the romance

Kim, Moon-Hee

This study intends to define the identity and dynamics of the romance[愛情傳奇小說] from the style and the motif. The priority of the romance[愛情傳奇小說] is constructing the affection by fantastic event. The fantastic motif of the romance[愛情傳奇小說] functions as active meaning during the process of realization to define the identity of the romance[愛情傳奇小說]. The romance[愛情傳奇小說] focuses on the limitations of human from the gaining and disappointing the affection beside the questions between the death and life, the anxiety in a real world so called internal prologue, or the prologue relating to fulfilling the anxiety that is improving the quality of real life.

However, some parts of the love affair classics[愛情類小說] from 17 Century had moved to different way in expressing the construction of the event with theme statement. The fantastic motif of the love affair classics[愛情類小說] has disappeared and the theme statement set a side due to the constructions only in realistic affection of the prologue. The love affair classics[愛情類小說] from 17 Century tries the reflections of actuality only by realistic affection, therefore love affair classics[愛情類小說] from 17 Century has the various figures as different genre and it shows dynamic activities of the genre.